

# 先秦시대 孔子와 儒家의 華夷觀에 대하여\*

李春植\*\*

## < 목 차 >

1. 머리말
2. 춘추전국시대 제하(諸夏)의 분열과 사회변동
3. 이적(夷狄)·만이(蠻夷)의 무력활동과 화이(華夷)사상의 형성
4. 공자와 유가의 화이관(華夷觀)의 성격
5. 유학 경전(經典) 속의 천하관과 화이관
6. 맺는 말

## 1. 머리말

상고시대 중원을 중심한 동아시아의 세계를 살펴보면 선진적 농경에 기반하여 찬란한 문화를 창달하고 누리고 있던 제하세계와 당시까지도 굴속에서 거주하고 짐승가죽을 입고 날 것을 그대로 먹는 원시적 생활상태에 있던 이적·만이의 세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주 왕조의 봉건제도의 와해로 춘추전국시대가 전개되면서 제하세계는 정치·군사적으로 다수 열국으로 분열, 대립되어 상호 항쟁하고 있었으며 사회·경제적으로는 수공업과 상업 등의 새로운 경제가 발달하고 이같은 새로운 경제의 발달과 번영은 수공인계층, 상인계층, 사인계층과 같은 새로운 사농공상의 시민사회를 출현시켰던 거대한 소용돌이와 전환기 시대였다. 그리고 이같은 전환기 속에서 제하세계의 분열과 항쟁은 주변의 무지·몽매한 이적·만이들에게 제하세계를 침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 이 논문은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高麗大 東洋史學科 教授

이에 따라 춘추전국시대 제하열국은 주변 이적·만이들로부터 대대적 무력침탈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이적·만이들의 지속적인 무력침탈로 제하세계에서는 이적·만이들에 대한 반감, 증오심, 차별의식이 점차로 깊어갔으며 마침내는 이적·만이들을 이리 승냥이 등과 같은 인면수심의 금수(禽獸)로 무시, 폄하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제하세계는 동아시아에서 유일의 선진문화였던 제하문화에 대해 필연적으로 절대적 우월감과 도취의식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서 인종차별에 못지않는 절대적 우월감과 도취의식 그리고 이적·만이들에 대한 절대적 멸시와 차별의식으로 총만된 화이관(華夷觀)이 형성되었는데 이 같은 화이관은 당시 최고지식인들이었던 공자와 유가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춘추전국시대 형성되었던 이 같은 화이관(華夷觀)이 당대의 공자와 유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동시에 유가들의 천하관 형성과 정치사상 수립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춘추전국시대 제하(諸夏)의 분열과 사회변동

중국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격렬한 변화와 신 사태가 전개되었던 춘추전국시대는<sup>1)</sup> 서주(西周) 왕조의 종법봉건제도의 붕괴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봉건제도의 붕괴는 주 유왕(幽王) 때의 견융(犬戎)의 침입과 주의 동천(東遷)으로 야기되었다.

1) 춘추전국시대는 서주(西周) 왕실의 동천(東遷, 770 B. C.)에서 진(秦) 나라의 중국통일(221 B. C.)까지의 약 550여 년 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춘추전국시대는 그 시대적 성격에 따라 다시 양분되는데 전기를 춘추시대(770-453 B. C.), 후기를 전국시대(453-221 B. C.)라 한다. 춘추시대의 명칭은 공자가 찬술했다고 하는 《춘추(春秋)》에서 유래하고 전국시대는 전국시대의 사실을 기록한 《전국책(戰國策)》에서 유래하였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로 양 시대를 구분해 보면 주 평왕의 동천에서 진(晉) 나라가 3분되어 한(韓) 위(魏) 조(趙) 나라가 독립했던 기원전 453년까지를 춘추시대라 하고 그 이후부터 진(秦) 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였던 기원전 221년까지를 대체적으로 전국시대로 취급하고 있다.

당시 견융은 주 왕조 북방에 산재하고 있었는데 주 왕실에서 후사 문제로 내분이 일어나자 이 기회를 이용하여 즉각 침입을 개시하였다. 그리하여 여산(驪山) 아래서 주 유왕을 패사 시키고 종주(宗周) 호경(鎬京)을 함락하였다. 이에 아들 주 평왕(平王)은 진(晉), 위(衛), 진(秦) 등 제후들의 도움으로 낙읍(洛邑)으로 수도를 옮겼는데 이것이 주의 동천(770 B. C.)이었다. 이 같은 견융의 침입과 유왕의 사망, 호경의 함락과 동천 등의 사태는 주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결정적으로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 왕실의 무력약화를 폭로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주 왕실의 무력약화와 통치능력 상실이 폭로되자 각 제후국은 봉건적 구속과 한계를 벗어나 독자적인 정치·군사적 활동을 전개하여 마침내 열국(列國)으로 성장하였다.<sup>2)</sup> 당시 낙읍으로 동천하였던 동주(東周)를 중심으로 열국의 동태를 살펴보면 황하연변에는 노(魯), 정(鄭), 위(衛), 송(宋), 기(杞), 진(陣), 조(曹), 채(蔡) 등의 열국이 있었고 중원지역에서 벗어나 변방에 위치한 열국을 보면 산둥반도 입구의 제(齊), 황하상류 북방의 진(秦), 진(晉), 우(虞), 남쪽 장강(長江)과 한수(漢水) 유역 일대의 초(楚), 수(隨), 신(申), 식(息), 서(徐), 등(登), 주(州), 기(己) 등이 있었으며 이보다 더 남쪽에는 오(吳)와 월(越)이 있었다.<sup>3)</sup> 그리고 이 시기의 주 왕실은

- 2) 주 왕실의 무력 약화가 폭로되고 제후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되자 주 왕과 제후간의 정치적 관계도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원래 각 제후는 주 왕실의 태묘(太廟)에서 주 왕으로부터 책명(策命)을 받고 제후로 봉봉되면 그 임기는 제후 자신의 일대(一代)에 국한되었다. 그러므로 제후가 사망하고 아들이 제후위(諸侯位)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다시 종주인 호경(鎬京)에 출두하여 주 왕으로부터 새로 책명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주 왕실의 무력이 기울고 통제력이 약화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제후들의 국력이 신장되자 새로 즉위한 제후들은 호경으로 출두하지 않고 대신 주 왕이 사신을 보내 책명을 수여,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제후가 주 왕에게 행하던 조근(朝覲)의 예도 점차로 중단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주 왕과 제후간의 봉건적 군신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 3) 춘추중기 이후 열국의 국가적 성격을 살펴보면 각국간에 국력의 강약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주권도 독립국가로 발전하고 있었으며, 이 같은 성격은 특히 국제사회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 소국이었던 송(宋) 나라의 재상 화원(華元)은 초의 침입을 예견하면서도 통행증이 없이 송의 영토를 통과하는 대국 초(楚)의 사신을 사형에 처했는데 이것은 송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정(鄭) 나라 역시 소국으로 대국 진(晉)과 초(楚) 사이에 끼어있어 양 대국으로부터 무력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대신 임명 시에 진 나라가 자국에 유리한 특정 인물의 임명을 강제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서 정 나라는 진의 무력침입을 예견하면서도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이를 거부하였다. 또 춘추전국시대의 각국은 한 치의 땅도 양보하지 않았던 영토국가였다. 사기(史記)에 의하면 오(吳)와 초(楚)의 국경에 서있는 한 그루 뽕나무 소유에 관한 양국 주민간의 사소한 시비가 국가문제로 비약하여 오와 초가 대병력을 동원하여 충돌하였는데 이 같은 사실은 당시 각국이 영토에 관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무력으로 대결했던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춘추중기 이후의 열국은 국력의 강약에 관계없이

그 세력이 더욱 약화되고 영토는 줄어들어 완전히 소국으로 전락하였으며 제후들의 조공도 거의 끊어졌다.

이렇게 주 봉건적 구속과 한계를 벗어난 열국은 독자적인 정치·군사적 성장을 계속하고 자국 중심의 국가이익과 세력신장에 몰두하였으므로 각 국간에는 치열한 대립, 항쟁이 시작되고 무력에 의한 병합이 노골적으로 자행되었다. 그러므로 춘추시대 전쟁의 횡수를 보면 1200여 회가 넘었고<sup>4)</sup> 춘추초기 100여 국에 달했던 열국의 수효가 춘추말기에는 13개국으로 축소되고 전국시대에는 다시 7개국으로 압축되었는데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열국 간의 약육강식 현상이 얼마나 치열하고 격렬하였는가를 말하고 있다.

또 춘추전국시대에는 이 같은 정치·군사적 항쟁과 병행하여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전례가 없는 극렬한 신 사태의 전개와 새로운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경제면에서 보면 춘추중기 이후에는 중국고대 산업혁명으로 불린 우경(牛耕)이 발명되고 철제농구가 출현하여 전국시대에 보편화되었는데 철제농구의 사용은 심경(深耕)을 가능케 하고 농경의 작업 자체를 용이케 하여 농업생산성을 극도로 높였다. 또 우경은 일인의 농경 면적을 수배로 확대하고 종래의 집단농경방식에서 단독농경을 가능케 하였으므로 농업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제고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농업의 발달은 또한 수공업과 상업 발달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므로 춘추중기 이후에는 가내수공업, 소규모의 개인수공업, 대규모의 민영수공업 그리고 국가 주도하의 관영수공업의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그리고 모두 정교하고 우수한 품질의 공산품을 생산하였으므로 수공업은 농업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발전하면서 마침내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같이 품질이 우수한 공산품의 대량 생산은 모두 상업 발달의 원천이 되었다.

따라서 상업은 우수한 공산품의 대량 생산과 도시의 발달을 기반으로 각국의 수도와 지방을 불문하고 발달하였다. 각 도시의 시(市)에는 각종의 점포가 즐비하고 각지에서 생산된 다양한 상품으로 가득 찼으며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발달하였다.

주권 영토 독립국가였음을 알 수 있다.

4) Cho-yun Hs'u, *Ancient China in Transition: An Analysis of Social Mobility, 722-222 B.C.*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5, p.56, Table 5 참조.

그리고 임치(臨淄), 한단(邯鄲), 대량(大梁) 등의 경제도시가 출현하였으며 포전(布錢), 도전(刀錢), 원전(圓錢) 등의 화폐가 널리 유통되었다 또 상인들은 각국간의 교통의 불편과 위험, 관세장벽, 경제제도의 불일치 등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이윤을 거둘 수 있었으므로 원격지 교역이 발달하였다. 그리고 이 원격지 교역의 발달에 의하여 중원(中原)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단일경제 유통권으로 탄생했다. 그리고 이같은 수공업과 상업의 새로운 경제 발달과 변형은 필연적으로 당시의 사회변동을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종래 동일혈연에 기반한 씨족공동체가 급속도로 해체되고 사전(私田)이 발달하면서 자작의 개별 소농민계층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 이들 개별 소농민계층은 5~6인으로 구성된 가(家) 또는 호(戶)를 이루고 대개 100무(畝) 정도의 토지를 소유하고 가족노동으로 경작하였는데 이같은 개별 소농민계층은 종래의 농민계층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농민계층의 형성이었다. 여기에서 상공업의 발달에 의해 형성된 수공민계층과 상민계층 그리고 평민출신으로 학식과 지식을 연마하여 관리로 출세하려고 하였던 사인(士人)계층이 새로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사·농·공·상민으로 구성된 사민(四民)사회였다. 그리고 이 사민사회는 농업만이 유일한 경제였고 귀족과 농민층만으로 구성되었던 폐쇄 고립된 서주시대의 봉건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였다.

이와 같이 춘추전국시대의 열국은 정치·군사적으로는 상호 대립, 항쟁의 끝없는 약육강식의 와중에 함몰하고 사회·경제적으로는 수공업과 상업의 새로운 경제가 발달하여 새로운 사·농·공·상의 사민사회가 성립되었는데 이 같은 열국 간의 상호 대립과 항쟁의 약육강식 그리고 전례 없는 사회·경제적 변동은 한 마디로 말해서 제하(諸夏)세계의 분열과 대립이었으며 거대한 전환기였다. 그리고 이같은 제하세계의 분열과 대립, 전환기는 종래 제하세계에 강력히 내제하였던 결속력을 약화시켰으므로 오랫동안 기회를 노리고 있던 주변 이족(異族)들의 침탈을 대대적으로 야기하였다.

### 3. 이적(夷狄)·만이(蠻夷)의 무력활동과 華夷사상의 형성

《춘추좌전》의 기록을 보면 은공(隱公) 원년부터 끝왕 애공(哀公) 27년까지 위(衛)·정(鄭)·노(魯)·송(宋)·온(溫)·제(齊) 등의 제하열국에 대한 이적·만이들의 침입과 약탈이 거의 매년 계속되었는데 이 같은 사실은 주변 이적·만이들의 침탈이 얼마나 격렬하고 극심하였으며 장기적이었는가를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하열국은 주변 이족들을 '이(夷)'·'융(戎)'·'만(蠻)'·'적(狄)'으로 폄하 하면서 무시하고 차별하기 시작하였는데 먼저 '이'·'융'·'만'·'적'의 명칭 유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은대의 갑골문(甲骨文)을 보면 주변 이족(異族)들을 지칭하는 '융(戎)'·'이(夷)'의 명칭이 보이고 서주시대 종주정(宗周鼎)에도 '적(狄)'·'만(蠻)'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은 은·주 왕조의 제하세계에서는 주변의 이족들을 '이'·'적'·'융'·'만' 등의 명칭으로 불렀으며 사용 빈도를 보면 '이적(夷狄)'이 제일 많고 '만이(蠻夷)'가 그 다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주대 문헌에 보면 '사이(四夷)'·'사예(四裔)'의 명칭도 사용되고 있다.<sup>5)</sup> 그리고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면 당시 제하세계를 중심으로 주변 이족들의 거주지 방향에 따라 동쪽에 거주하고 있는 이족은 '동이(東夷)', 서쪽에 산재하고 있는 이족은 '서융(西戎)', 남쪽에 활동하고 있는 이족은 '남만(南蠻)', 북쪽에서 준동하고 있는 이족은 '북적(北狄)'으로 구분하여 불렀는데 이 같은 사실은 주대에 이미 '사이' 명칭이 나타나고 춘추전국시대에는 '동이'·'서융'·'남만'·'북적'의 명칭이 출현했음을 알 수 있다.<sup>6)</sup>

5) "사방의 오랑캐가 교대로 중국을 침략하므로 군사들이 쉬 틈이 없다(四夷交侵中國 用兵不息, 詩經小雅)." "현명한 군주가 덕을 닦으니 사방의 오랑캐들이 원근을 가리지 않고 와서 방물을 헌상하였다(明王慎德 四夷咸賓 無有遠爾畢獻方物, 尙書 周書), (無怠無荒 四夷來王, 尙書 虞書)." "동쪽을 정벌하면 서쪽 오랑캐가(西夷) 원망하고 남쪽을 치면 북쪽 오랑캐(北狄)가 원망한다." 등의 기록이 많은데 이 같은 사실은 서주(西周)시대에는 주변 이족들에 대한 이(夷), 융(戎), 적(狄), 만(蠻) 등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이(四夷)'의 개념도 이미 출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 "그러므로 동이 서융 남만 북적들이 중국 제후국에 내조하여 복종하지 않음이 없었다.(故東夷西戎南蠻北狄中諸侯國莫不賓服, 管子 小匡, p.126.). ……동방의 오랑캐를 이(夷)라 한다……남방

그런데 은·주 왕조 이래로 무력침탈을 수시로 자행하였던<sup>7)</sup> 주변 이적·만이들은 춘추전국시대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하열국에 대해 대대적인 침입과 약탈을 거의 매년 계속하였다. 그리고 그 침탈상태를 보면 “이적의 오랑캐가 중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 남쪽 북쪽의 오랑캐가 교대로 중국을 침략하고 있는 것이 선이 이어진 것 같다(夷狄也而함病中國 南夷與北狄交侵中國 不絕若線)<sup>8)</sup>”고 비유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은 주변 이적·만이들의 침탈이 얼마나 격렬하고 극심하였는가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이적·만이들의 제하세계에 대한 극렬한 침탈은 필연적으로 제하세계의 이적·만이들에 대한 반감과 증오감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음과 적의 오랑캐는 승량이 이리 같은 것이다. 그들의 욕심을 다 채워줄 수 없다(戎狄豺狼 不可厭也).<sup>9)</sup>”

“대체로 음과 적의 오랑캐는 ……탐욕스러워 양보하지 않고 그 혈기를 다스릴 줄 몰라 금수와 같다(夫戎狄……貪而不讓 其血氣不治 若禽獸焉).<sup>10)</sup>”

“음 오랑캐는 경박하고 정연하지 못하며 욕심이 많고 서로 친근하지 못한다. 싸움에 이기면 공을 사양하지 않고 패하면 서로 구하지 않는다(戎, 輕而不整 貪而無親, 勝不相諾 敗不相救).<sup>11)</sup>”

등의 기록이 수없이 많은데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당시 이적·만이들은 문란한 기율, 상부상조 정신의 부재, 끝없는 탐욕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오직 제하세계에 대한 무력침탈에 열중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제하세계의 증오와 반감

오랑캐를 만(蠻)이라고 한다……서방의 오랑캐는 음(戎)이라고 한다……북방의 오랑캐는 적(狄)이라고 한다(東方曰夷……南方曰蠻……西方曰戎……北方曰狄, 禮記注疏及補正, 王制, p.15b.).”

7) 특히 주 선왕(宣王) 시대를 전후하여 침탈이 극심하였다. 그러므로 당시의 기록을 보면 “힘은 형만이 교대로 중국을 침탈하고 있으므로 정치와 행정의 무너지고 백성들이 상방으로 이산되었다(蠻狄 荆蠻交侵中國 官政隳廢 百姓離散.)” 그리고 유왕(幽王) 시에는 “사방의 오랑캐가 교대로 침탈하므로 중국이 모두 반란을 일으키고 군사들이 사방에서 일어나므로 기근이 크게 들었다(四夷交侵 中國皆叛 師旅並起 因之以饑饉).”등의 기록이 많다.

8) 《公羊注疏及補正》, 閔公 元年, p.4a.

9) 《左傳注疏及補正》, 閔公 元年, p.1a.

10) 《國語韋氏解》, 周語 中, p.49.

11) 《左傳注疏及補正》, 隱公 9年, p.25b.

이 깊어가서 마침내 사람이 아닌 승냥이, 이리 같은 인면수심의 금수(禽獸) 무리로 간주하고 차별, 멸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차별, 멸시의 감정은 이적·만이들의 부단한 무력침탈과 위협에서 연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도 그 원인이 있었던 같다.

“음과 적의 오랑캐는 수초(水草)를 따라 생활하고 재물을 귀하게 여기고 토지를 소홀히 한다(戎狄荐居 貴貨易土).”<sup>12)</sup>

“여러 유족들은 음식 의복이 제하와 다르고 사신도 왕래하지 않고, 말도 소통되지 않는다(諸戎 飲食衣服不與華同 贊幣不通 言語不達).”<sup>13)</sup>

“동방의 오랑캐를 이(夷)라고 하는데 머리를 풀어헤치고 문신(文身)을 하며 화식을 하지 않는 자도 있다. 남방 오랑캐는 만(蠻)이라고 한다. 이들은 이마에 먹물로 무늬를 새기고 두 발의 발가락이 서로 향하게 하며 화식을 하지 않는 자도 있다. 서방의 오랑캐는 용(戎)이라고 한다. 머리털을 풀어헤치고 짐승의 가죽을 입으며 곡식을 먹지 않는 자도 있다. 북방의 오랑캐는 적(狄)이라고 한다. 새의 깃털로 된 옷을 입고 굴속에 살며 곡식을 먹지 않는 자도 있다(東方曰夷 被髮文身 有不火食者矣 南方曰蠻 雕題交趾 有不火食者矣 西方曰戎 被髮衣皮 有不粒食者矣 北方曰狄 衣羽毛 穴居 有不粒食者矣).”<sup>14)</sup>

“오방의 백성들은 말이 통하지 않고 기호와 욕망이 서로 같지 않다. 그 뜻을 통하고 그 욕망을 통하려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같은 사람을 동방에서는 기(畜), 남방에서는 상(象), 서방에서는 적제(狄鞮)라 하고, 북방에서는 역(譯)이라 한다(五方之民 言語不通 嗜欲不同 達其志 通其欲 東方曰畜 南方曰象 西方曰狄鞮 北方曰譯).”<sup>15)</sup>

에서와 같이 이적·만이들은 사악(四嶽)의 후손들로서 수렵과 유목생활에 종사하고 있으며 음식과 언어 그리고 생활방식 등이 당시 제하세계와 아주 다르고 또 예의와 도덕도 없는 극히 유치한 문화수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은 한 마디로 말해서 농경에 기반한 제하세계와 유목·수렵에 기반하고 있던 이적·만이 간에는 문화면에서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고 또 문화적 우열의 차이가 깊었음을 말하고 있다. 또 아래의 글을 보면

12) 《左傳注疏及補正》, 襄公 4년, p.30a.

13) 《左傳注疏及補正》, 襄公 14년, p.9b.

14) 《禮記注疏及補正》, 王制, p.15b.

15) 《禮記注疏及補正》, 王制, p.15b.

“응 오랑캐는 금수의 무리인데 오랑캐를 얻고 화하를 잃게 되는 것은 불가하다(戎禽獸也 獲戎失華 無及不可乎).”<sup>16)</sup>

“사이(四夷)는 제하(諸夏)를 도모할 수 없고 이적은 화하(華夏)를 어지럽힐 수 없다(裔不謨夏 夷不亂華).”<sup>17)</sup>

“제하(諸夏)를 가까이 하고 이적을 멀리해야 한다(春秋內諸夏 而外夷狄).”<sup>18)</sup>

“이적은 중국의 주인이 될 수 없다(不與夷狄之主中國).”<sup>19)</sup>

등과 같은 기사<sup>20)</sup> 자주 발견되는데 이 내용은 한결같이 이적·만이들의 중국 지배를 불허한다는 의미였다. 이와 같이 무지·몽매한 이적·만이들의 제하세계에 대한 부단한 무력적 침탈과 위협은 제하세계의 위기감을 고조시켜서 마침내 극단적인 적대감과 함께 절대적 차별과 멸시감을 고양시키어 이적·만이들을 금수시하고 차별, 멸시, 배격해야 한다는 화이관념을 보편화시켰다. 그리고 이같은 화이관념은 무력침탈을 계속하는 이적·만이들은 철저히 박멸(撲滅)해야 한다는 양이(攘夷) 사상, 비록 이적·만이들이라 하더라도 중국문화와 예법에 따르면 받아드려야 한다는 수용성(受容性), 혈통이 제하족이어도 인륜(人倫)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적·만이로 폄하하여 축출한다는 권계(勸戒)주의로 구성된 화이사상으로 발전하였다.<sup>21)</sup>

대체로 이 같은 화이사상은 미개, 야만의 이적·만이들의 부단한 무력침탈에 의해 야기된 증오, 멸시, 차별 의식 그리고 춘추중기 이래 발달된 찬란한 중국문화를 배경으로 형성된 문화적 우월감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화이사상은 당시에 최고지식인계층이었던 공자와 유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

16) 《左傳注疏及補正》, 襄公 4年, p.29a.

17) 《左傳注疏及補正》, 定公 16年, p.18a.

18) 《公羊注疏及補正》, 成公 16年, p.18a.

19) 《公羊注疏及補正》, 昭公 23年, p.23b.

20) 위와 같은 기사는 같은 책, 哀公 16a에도 보이고 있다.

21) <日原利國>, 《漢代思想の研究》, 東京: 研文出版, 1986, pp.164-166.

#### 4. 공자와 유가의 화이관(華夷觀)의 성격

먼저 논어(論語) 중에서 공자가 주변 이적·만이들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공자가 말하기를 말이 성실하여 신의가 있고 행동이 돈독하여 공경스러우면 비록 오랑캐의 나라에서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이 성실치 못하여 신의가 없고 행동이 돈독치 못하여 공경스럽지 않으면 비록 향리에서도 행할 수 있겠는가(子曰 言忠信 行篤敬 雖蠻貊之邦 行矣 言不忠信 行不篤敬 雖州里 行乎哉).”<sup>22)</sup>

“공자가 말하기를……거처가 공손하고 신중히 일을 보고 남에게 성실하면 비록 오랑캐의 땅에 가더라도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子曰……居處恭 執事敬 與人忠雖之夷狄 不可棄也).”<sup>23)</sup>

이상의 두 문장에 의하면 공자는 사람의 행실이 돈독하고 신의가 있고 올바르면 이적·만의 지역에서도 존경과 추앙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같은 공자의 언급은 이적·만이 지역은 문화수준이 아주 낮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공자가 동쪽 오랑캐의 땅에 가서 살기를 바랐다. 이에 어떤 사람이 오랑캐 땅은 누추한데 어떻게 삽니까 라고 말하니까 공자가 군자가 거처하는데 어찌 누추함이 있겠는가 라고 대답하였다(子欲居九夷 或曰 陋 如之何 子曰 君子居之 何陋之有).”<sup>24)</sup>

이 같은 공자의 언급을 종합하여 보면 공자는 문화발달의 선진·후진을 기준으로 분명히 제해세계와 이적·만의 두 세계를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제해세계는 문화가 발달된 선진지역 그리고 이적·만이 지역은 문화가 낙후된 후진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문장을 보면

22) 《論語注疏及補正》, 衛靈, p.157.

23) 《論語注疏及補正》, 子路, p.135.

24) 《論語注疏及補正》, 子罕, p.91.

“오랑캐는 제하를 도모할 수 없고 이적은 제하를 어렵게 할 수 없다(裔不謀夏 夷不亂華).”<sup>25)</sup>

의 공자 언급이 있다. 공자가 이 같은 언급을 한 배경을 살펴보면 공자가 노(魯) 나라 재상으로 있을 때 노공(魯公)을 수행하여 협곡(夾谷)에서 제 나라의 제후(齊侯)와 회동하였다. 당시 제후는 이 회동에서 노 나라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이적 출신의 래인(萊人)을 시켜서 노공을 무력으로 위협케 하였다. 이 때에 공자가 나서서 이적은 무력으로 제하를 위협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 같은 공자의 말속에는 이적·만이를 제하세계로부터 구분 구별하고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는 의식이 짙게 깔려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 다음의 사실을 보면

“공자가 말하기를 오랑캐 나라의 임금이 있는 것은 제하의 나라에서 임금이 없는 것보다도 못하다(夷狄之有君 不如諸夏之亡也).”<sup>26)</sup>

의 언급이 있다. 여기에서 공자는 이적·만의 지역에는 설령 군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군주가 없는 제하세계가 훨씬 좋다고 비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은 피하고 있지만 정치·경제·문화·윤리·도덕 등의 모든 면에서 이적·만이 지역을 후진, 낙후지역으로 단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은 공자가 주변 이적·만이들을 극도로 무시, 차별하고 있었던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공자가 이렇게 이적·만이를 극단적으로 차별, 무시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적·만이들의 단순한 무력침탈에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공자의 다음 언급을 살펴보면

“공자가 말하기를 관중(管仲)이 제 환공을 도와 제후들의 패자(覇者)가 되게 하고 천하를 하나로 통일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지금에 이르러서도 그 혜택을 받고 있다. 만약 관중이 아니었다면 우리들은 머리를 풀고 옷깃을 왼쪽으로 매었을 것이다(子曰 管仲 桓桓公 霸諸侯 一匡天下 民到于今 受其賜 微管仲 吾其被髮左衽矣).”<sup>27)</sup>

라고 술회하였는데 이 같은 공자의 언급은 이적·만이들의 단순한 무력침탈만을 겨

25) 《左傳注疏及補正》，定公 14年, p.1a.

26) 《論語注疏及補正》，八份, p.22.

27) 《論語注疏及補正》，憲問, p.147.

정하여 증오하고 차별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제하세계와 제하문화는 이적·만인들의 무한정한 침탈에 직면하여 몰락의 위기에 빠져 있었는데 공자는 당대 최고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이적·만인들의 지속적인 무력침탈에 의한 제하세계와 제하문화의 몰락과 미개, 야만의 이적·만인들에 의한 '이적화(夷狄化)'의 가능성을 먼저 예견하고 깊이 우려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공자의 이적·만인들에 대한 증오감과 차별의식은 보다 근본적인 면에서 연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맹자(孟子)는 공자 보다 약 100여 년 늦은 시기의 전국시대 중기에 태어나 활약하였다. 이 시대는 춘추말기에 못지않게 각국 간에 공벌, 병합이 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이적·만인들의 제하세계에 대한 무력침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당시 활동하였던 맹자의 화이관을 살펴보면

“나는 중국의 것으로 이적을 변화시켰다는 말은 들었어도 중국의 것이 이적에 변화되었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하였다 진량은 초나라 사람으로 주공과 공자의 도를 좋아하여 북쪽으로 와서 중국의 학문을 배웠는데 북방의 학인들도 그보다 앞서지는 못하였다……당신의 형제들이 그를 수십 년 동안 섬기다가 스승이 죽자 배반하였다. 이제 당신은 남쪽 미개 족속의 왜가리 같은 말로 선왕의 도를 비난하고 있다……(吾聞用夏變夷者 未聞變於夷者也 陳良 楚產也 悅周公仲尼之道 北學於中國 北方之學者 未能或之先也……子之兄弟事之數十年 師死而遂倍之 南蠻馱舌之人 非先王之道……).”<sup>28)</sup>

먼저 이 문답의 배경을 살펴보면 원래 등(滕)이라는 주 왕실과 동성이었던 희성(姬姓)의 제후국이었는데 이 등 나라에서 초나라 출신의 허행(許行)이라는 사람이 신농(神農)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진상(陳相)은 중국 사람으로 학식이 높았던 진량(陳良)으로부터 주공·공자의 학문을 배웠는데 홀연히 진량으로부터 배웠던 주공·공자의 학문을 모두 버리고 허행의 가르침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맹자가 진상의 행위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 위의 글의 내용이다.

여기에서 보면 맹자는 남쪽 문화를 '때까치 같은 말을 사용하는 남쪽오랑캐(南蠻馱舌之人)'들의 문화로 비하하고 주공·공자의 학문을 버리고 남쪽의 야만적 문화를

28) 《孝經孟子注疏及補正》, 滕文公上, p.10b.

추종하는 진생을 “이적으로 변질되는 것(變於夷者)”으로 비난하고 또 진생이 중국을 버리고 이렇게 남쪽 만이를 추종하는 것은 “높은 나무에서 내려와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下喬木而入於幽谷者) 非先王之道”과 같은 것이라고 비난하였는데 그의 미는 발전, 향상을 도모하지 않고 퇴보, 타락한다는 뜻이다. 또 다음의 맹자 언급을 보면

“백규가 나는 20분의 1의 세를 받고 싶다고 말하자 맹자는 당신의 방법은 학족의 방법이다…대체로 학족은 오곡이 생산되지 않고 겨우 수수만이 생산된다. 거기에는 성곽 궁실 그리고 종묘에서 제사 지내는 예의도 없다. 제후의 폐백과 빈객의 향연도 없고 백관도 유사도 없기 때문에 20분지 1을 받아도 충분하다(白圭曰 吾欲二十而取一 何如 孟子曰 子之道 貉道也……夫貉 五穀不生 惟黎生之 無城郭宮室宗廟祭祀之禮 無諸侯幣帛饗飧 無百官有司 故二十取一而足也).”<sup>29)</sup>

맹자는 원래 정전제(井田制)의 시행과 더불어 10분의 1 세를 주장하였다. 그런데 당시 백규(白圭)가 20분의 1세를 주장하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설명이다. 주소에 의하면 학(貉)은 북방의 미개 지역을 말하고 있다. 오곡이 생산되지 않고 수수만 생산된다고 하는 것은 반목반농의 사회를 말하고 있으며 성곽 궁실 백관 유사 등이 없다는 사실은 체계적인 국가조직과 통치제도의 미 발달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종묘에서 제사지내는 예도 없다는 현상은 아직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던 미개사회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맹자는 이 같이 문명이 거의 부재한 미개사회에서는 방대한 예산이 필요 없으므로 20분의 1세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같은 맹자의 의식 속에는 제하세계에서와 같은 성곽 궁실 종묘 향연 제사의 예 등의 문물제도가 발달된 지역은 선진지역 그리고 이 같은 문물제도가 부재한 지역은 미개 야만의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맹자는 주공·공자의 학문을 으뜸으로 치고 남쪽 문화는 때까지 같이 짓어대는 족속들의 문화로 비하하고 있으며 이 같은 만이들의 학문을 배우는 것은 바로 퇴보, 타락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29) 《孝經孟子注疏及補正》, 告子 下, p.12a.

점에서 볼 때 맹자의 화이관은 이적·만이들의 무력침탈에 의해 야기된 증오 멸시 차별 등의 감정적 요인만이 아니고 그보다는 문화발달의 선진·후진의 차이에 기반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순자(荀子)의 화이관을 살펴보자. 순자(荀子) 왕제편(王制篇)을 보면

“북해 지역에서는 잘 달리는 말과 잘 짚는 개를 생산하므로 중국은 이것을 수입하여 길리서 부리고 남해 지역에서는 큰 새끼 상아 소가족 구리 붉은 모래 등을 생산하기에 중국은 이것을 가져다가 재물로 삼고 있다. 동해 지역에서는 자주빛 천 고운 갈포 물고기 소금 등을 생산하므로 중국은 이를 가져다가 입고 먹고 있다. 서해 지역에는 짐승가족과 분양이 아름다운 쇠꼬리를 만들므로 중국은 이것을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다(北海則有走馬吠犬焉 然而中國得而畜使之 南海則有羽翮齒革曾青丹雘焉 然而中國得而財之 東海則有紫紘魚鹽焉 然而中國得而衣食之 西海則有皮革文旄焉 然而中國得而用之).”<sup>30)</sup>

의 기사가 있다.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북해(北海) 남해(南海) 동해(東海) 서해(西海)는 한 마디로 말해서 중국(中國)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사방에 걸친 있는 사해(四海)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왕선겸(王先謙)의 주석을 보면 “해(海)는 황량하고 침침한 먼 지역을 말하지 반드시 바다라고 할 수는 없다(海謂荒海絕遠之地 不必至海水也).”고 하였는데 이 같은 해석에 의하면 사해는 바로 사이(四夷) 지역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순자의 천하관은 가운데 위치한 중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사이’ 지역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이’ 지역에 대해서 순자는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하의 나라는 모두 의복과 의례는 같았다. 만이 융적의 나라는 의복은 같았으나 의례는 달랐다……만이는 요복에 봉하고 융적은 황복에 봉하였다(故諸夏之國 同服同儀 蠻夷戎狄之國 同服不同制……蠻夷要服 戎狄荒服).”<sup>31)</sup>

이 글에서 보면 순자는 이적·만의 의례가 제하의 나라와 달랐던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제하의 제후들과 이적·만이들을 제후로 분봉하는데 만이는 요복(要

30) 《荀子集解》, 王制, pp.102-103.

31) 《荀子集解》, 正論, p.220.

服)에 봉하고 융적은 황복(荒服)에 봉해졌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만이와 융적이 분봉된 요복과 황복을 살펴보면 이들 지역은 중원에서 멀리 떨어져 제하나라의 풍속과 관습이 다르고 문화가 낙후되었으며 이족들이 살고 죄인들을 귀양 보내는 유배지였다. 그런데 순자가 제하세계에서 멀리 떨어지고 문화가 낙후된 지역으로 이적·만이들을 분봉, 배치하였던 사실은 순자 역시 이적·만이들을 비하, 폄하하고 있었던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적·만이들에 대한 순자의 차별의식은 이적·만의의 지속적인 무력침탈에 의해 야기된 반감 증오와 같은 감정적 요소보다는 역시 중국을 중심으로 문화발달의 선진, 후진적 차이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공자의 화이관은 이적·만의의 제하세계에 대한 무력침탈에서 야기되었던 반감 증오 차별 등의 단순한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 제하세계와 그 문화의 몰락 그리고 '이적화'에 대한 근본적 우려에서 형성되었으며, 맹자와 순자의 화이관은 세계 유일의 선진문화였던 제하문화 그리고 이적·만이들의 원시적 문화수준의 차이 즉 문화발달의 선진·후진의 차이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하세계를 중심부로 이적·만을을 주변부로 설정하는 화이관이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공자, 맹자, 순자는 모두 전국난세를 종식시키고 천하를 통일하여 태평성대를 이루려고 하였던 정치사상가들이었으므로 이같은 유가의 화이관은 이후 유가의 천하관 형성과 정치사상 수립에 필연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없었다.

## 5. 유학 경전(經典) 속의 천하관과 화이관

유가의 정치사상은 서주(西周) 시대의 천명(天命)사상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즉 우주 삼라 만상의 창조주인 하늘(天)이 천명을 천자에게 내려 천하(天下)를 통치케 한다는 사상이었다. 이 천명사상에 의해 주 왕은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은 천자(天子)로써 천의(天意)를 천하(天下)에 실천하는 유일무이한 통치자로 부상하였다.<sup>32)</sup> 그

러므로 하늘 아래의 모든 땅과 바다는 주 왕의 통치영역이고 이하(夷夏)를 망라한 모든 백성들은 주 왕의 신민이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주 왕은 주 왕조의 봉건적 영역을 통치, 지배하는 세속적 통치자였지만 이념적으로는 천명을 받들어 화이(華夷)을 망라하여 천하를 통치하는 신성한 그리고 유일무이한 통치자였다. 여기에서 주 천자를 유일무이한 통치자로 그리고 화·이를 망라한 전 세계를 주 왕의 통치영역으로 설정한 하나의 새로운 세계관이 수립되었는데 이 같은 주 왕조의 천명사상과 천하관은 거의 그대로 유가의 정치사상으로 계승되어 발전하였다. 그러므로 《예기》에 보면 공자는

“하늘에는 두 태양이 없고 땅에는 두 왕이 없다(天無二日 土無二王).”<sup>33)</sup>

라고 하였으며 맹자도 이 같은 공자의 언급을 반복하여

“하늘에는 두 태양이 없고 백성들은 두 왕이 없다(天無二日 民無二王).”<sup>34)</sup>

고 하였다. 그리고 다시 《맹자》에 보면

“하늘 아래의 모든 땅은 주 왕의 통치영역이고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주 왕의 신민(臣民)이다(溥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賓 莫非王臣)”<sup>35)</sup>

의 《시경》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은 공자와 맹자는 주 왕조의 천명사상과 천하관을 계승하여 우주 삼라만상의 창조주인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은 천자가 천의를 시행하는데 그 통치영역은 제하세계와 이적·만을 망라한 천하로 설정하였던 주 왕조의 정치사상을 그대로 전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유학의 경전(經典)을 보면 ‘화이’를 망라한 천하를 다스리는 정치제도으로써 오복(五服)·구복(九服)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32) 이춘식, <중화세계질서이념의탄생에대하여>, 《중국학논총》, 제1집, 1998, pp.242-243.

33) 《禮記注疏及補正》, 曾子問, p.5a.

34) 《孟子》, 萬章 上, p.9a.

35) 위와 같음.

먼저 오복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상서》 우서(虞書) 익직(益稷)에 기록되어 있는데 순(舜) 임금 시대에 시행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오복을 이루어 오천 리에 달했다 12주에 주장인 사(師)를 두었다(弼成五服 至五千州 十有二師).”<sup>36)</sup>

라 하고 주소에 의하면 이 오복은 전복·후복·수복·요복·황복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오복 중에서 전복·후복·수복은 제하 제후국 그리고 요복과 황복은 이적·만이의 제후국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상서》우공(禹貢)편에는 다시 오복제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오복제도를 다시 정하여 경사로부터 사방 5백 리 이내의 지역은 전복(甸服)……전복 밖으로 사방 5백 리는 후국(侯國)……후국 밖으로 사방 5백 리는 수복(綏服)……수복 밖으로 사방 5백 리는 요복(要服)……요복 밖으로 사방 5백 리는 황복(荒服)이라고 하였다(……五百里甸服……五百里侯服……五百里綏服……五百里要服……五百里荒服……).”<sup>37)</sup>

여기에서 보면 우 임금이 시행한 오복제도 역시 순 임금 때와 마찬가지로 전복 후복·수복·요복·황복으로 조직되어 있고 이 중에서 요복·황복은 이적과 만이 지역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서》 주관(周官)에 보면

“주 왕이 만방을 선무하였으므로……후(侯)·전(甸)·남(男)·채(采)·위(衛)·만복(蠻服)의 6복 제후들이 덕을 받들지 않는 자가 없게 되었다(惟周王撫萬邦……六服群辟 罔不承德).”<sup>38)</sup>

라하고 그 주소에 육복을 후복·전복·남복·채복·위복·만복으로 설명하고 이 중에서 위복·만복은 이적·만이들이 분봉되었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주례 추관(秋官) 사구(司寇) 하에 보면

36) 《尙書注疏及補正》, 益稷, p.27b.

37) 《尙書注疏及補正》, 禹貢, p.8a-8b.

38) 《尙書注疏及補正》, 周官, p.14a.

“방기는 천리이다 그 외 사방 5백 리 지역은 후복(侯服)……후복 외 사방 5백 리 지역은 전복(甸服)……그 외 사방 5백 리 지역은 남복(男服)……그 외 사방 5백 리 지역은 채복(采服)……그 외 사방 5백 리 지역은 위복(衛服)……그 외 사방 5백 리 지역은 요복(要服)……구주 외의 지역은 모두 번국(藩國)이라 하였다(邦畿千里 其外 四方五百里 謂之侯服……其外方五百里 謂之甸服……其外方五百里 謂之男服……其外方五百里 謂之要服……九州之外 謂之藩國……).”<sup>39)</sup>

에서와 같이 천하는 구복(九服)으로 조직되었는데 이 중에서 후복·전복·남복·채복·위복·요복의 6복은 구주(九州)로 간주하고 6복 이외의 지역은 번국(藩國)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 번국은 이적·만이지역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학 경전 속에는 자료에 따라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천하를 오복·구복 등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제하 제후국과 이적·만이 제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제후는 이·하를 불문하고 작위의 고하 거리의 원근에 따라 주 천자에게 조공(朝貢)을 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우주 삼라 만상의 창조주인 ‘천’으로부터 천명을 받은 중국 천자를 정점으로 오복·구복 등의 봉건제도를 통치근간으로 그리고 이·하를 망라한 천하일국(天下—國)의 봉건적 세계국가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또 오복·구복 등의 자료를 담고 있는 문헌을 살펴보면 《상서》 우공편은 대체로 춘추말기 전국초기에 편찬된 것 같고 《순자》는 전국말기 그리고 《주례》와 《예기》는 역시 전국시대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같은 사실을 감안해 보면 오복·구복제도 등에 기본적인 그리고 화이를 망라한 봉건적 세계국가상은 대체로 전국시대에 제시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상 전국시대의 중국은 비록 정치·군사적으로는 장기간의 분열과 대립 속에 있었지만 사회·경제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통일되어 가고 있었으며 각국 간의 전쟁도 통일전의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같은 정치·사회·경제·문화적 면에서 통일 지향적 현상과 추세가 전국시대의 사상이 특히 유가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그러므로 유가들은 자신들이 계승한 주대의 천명사상과 천하관 그리고 이상적 정치제도로 추앙하고 있던 봉건제도를 기반으로 주 천자를 정점으로 한 오

39) 《周禮注疏及補正》, 37:23b-24a.

복·구복 등에 기반한 봉건적 세계국가상을 수립, 제시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 6. 맺는 말

상고시대 동아시아 세계를 살펴보면 선진적 농경에 기반하여 찬란한 문화를 창달하여 누리고 있던 제하세계와 당시까지도 굴속에 거주하고 짐승가죽을 입고 날 것을 그대로 먹는 원시적 생활상태에 있던 이적·만이의 세계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주 왕조 봉건제도의 붕괴로 제하세계가 열국으로 분열, 대립되어 상호 결속력과 단결이 약화되자 주변의 이적·만인들이 대대적인 무력침탈을 자행하였다.

이같은 이적·만이들의 제하세계에 대한 지속적 무력침탈은 제하세계의 이적·만이들에 대한 반감, 증오심을 야기하여 마침내 이리 승냥이 등의 금수 또는 사악의 후예로 간주하고 극단적 차별과 멸시를 하였으며 여기에서 치열한 양이사상, 관대한 이적의 수용성, 그리고 강도 높은 권계주의로 구성된 화이사상이 발생하였는데 이 같은 화이사상은 당시 최고지식인들이었던 공자와 유가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러므로 공자의 화이관을 살펴보면 이적·만이들의 무력침탈에 의한 살인, 방화, 약탈 등의 단순한 감정적 차원에서 발생되었던 것이 아니었다. 공자는 당시 최고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이적·만이들의 지속적인 무력침탈에 의한 제하세계와 제하문화의 몰락 위기 그리고 미개, 야만의 '이적화'의 가능성을 누구보다도 먼저 예측하고 깊이 우려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공자의 화이관은 이적·만이들의 무력침탈에서 야기될지 모르는 제하세계와 그 문화의 몰락 그리고 제하세계의 '이적화'에 대한 근원적 입장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국중기와 말기에 활동하였던 맹자와 순자의 화이관은 세계 유일의 선진문화였던 제하문화 그리고 이적·만이들의 원시적 문화발달의 선진, 후진의 차이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맹자, 순자의 화이관은 제하세계를 중심부로 이적·만이를 주변부로 설정하는 화이관이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공자와 유가들의

이 같은 화이관은 유가의 천하관 형성과 정치사상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므로 유학 경전을 살펴보면 천하·동치제도로써 오복·구복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오복·구복의 제도는 한결같이 주 천자를 정점으로 제하 제후국을 중심부에 그리고 이적·만이 제후국을 주변부에 설정한 천하일국의 봉건적 세계국가상이었다. 이렇게 주 천자를 정점으로 천하의 중심부에 제하 제후국 그리고 주변부에 이적·만이의 제후국으로 구성되고 또 이·하를 막론하고 모든 제후는 주 천자에게 조공을 행하는 천하일국의 봉건적 세계국가상은 공자와 유가들의 화이관이 그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